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650호 (2019년 3월 넷째 주) 통계·평가센터 Tour.go.kr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남파랑길'을 세계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육성	2
[경기도] 도, 12개 경기관광유망축제선정 ... 도비 3~5천만 원 지원	5
[인천광역시] 인천시, 중국의 대표 마이스 박람회 「아이티 앤드 씨엠 차이나」(IT&CM China) 참가 ..	6
[인천광역시] 바닷길 따라 온 중국 마이스(MICE) 단체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인천	7
[대전광역시] 민간주도로 만들어나가는 대전 방문의 해	8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 민간개발 1개 업체 '도전'	9
[울산광역시] "울산관광 만족도를 높인다"	10
[울산광역시] "대만 관광객을 사로 잡자!"	11
[울산광역시] 울산시, '관광전담기관' 설립 추진	12
[부산광역시] 말레이시아 관광설명회 통해 관광도시 부산 매력 어필	13
[부산광역시] 대만 여행 TV프로그램(아이완커), 부산 관광지 촬영	15
[부산광역시]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발표심사 대비 1:1 멘토 컨설팅	16
[경상북도] 세계로 열린 경북관광... 경북문화관광공사 출범 비전 선포식 개최	17
[경상남도] 경상남도, '2019 경남관광박람회' 통해 관광 활성화에 총력	18
[경상남도] 중국 단체관광객 경남 방문, '중국 금한령 해제되나?'	19
[광주광역시] 광주시, 도교 테마관광설명회 참가	20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전북, 대만 관광객 유치 가속화	21
[광주광역시] 어등산 관광단지사업 재개한다	23
[전라북도] 2019년 전북순환관광버스 23(토) 운행 시작!	25
[전라남도] 혼자서도 남도 맛 여행 즐길 수 있다	26
[전라남도] 전남 대표 여행상품 '남도한바퀴' 30일부터 달린다	27
[전라남도] 전남도,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 나서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글로벌 마이스 중심지 재도약 추진	29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남파랑길'을 세계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육성

- 부산 오륙도부터 해남 땅끝마을을 잇는 1,463km 국내 최장 걷기여행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우리나라 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의 남해안 노선에 해당하는 '남파랑길'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 코리아둘레길: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걷기여행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둘레(동해, 남해, 서해, 비무장지대 지역)를 잇는, 사람·자연·문화를 만나는 걷기 여행길

□ '남파랑길'은 2016년에 개통한 해파랑길*에 이은 '코리아둘레길'의 두 번째 노선으로서 부산광역시 오륙도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까지 이어지는 1,463km의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이다.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해안길과 숲길, 마을길, 도심길 등 다양한 유형의 길이 어우러져 걷기여행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90개 구간(코스)으로 구성되었다.

* 해파랑길: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강원도 고성 구간 770km의 동해안 걷기 여행길

○ 남파랑길 세부 구간 90개는 여행자의 1일 이동거리와 이용 편의를 고려해 설정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과 항구·해수욕장 등 지역 내 주요 관광 거점과의 연계성, 여행객의 지역 내 체류 유도 등을 고려해 구간별 시작점과 끝점을 정했다.

【 노선 확정 및 브랜드화 】

- ◇ 노선 확정: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걷기여행길을 중심으로 지역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 노선(안)에 대한 현장 전수 조사와 정밀조사를 거쳐 설정했으며, 코리아둘레길 민간추진협의회와 남해안권 지역협의회를 거쳐 최종노선으로 확정
- ◇ 길 명칭: '18년 8월 대국민 공모를 거쳐 '남파랑길'로 확정
 - * 남파랑길: 남해의 지역성(남쪽)과 쪽빛 바다의 중의성을 표현
- ◇ 브랜드이미지(BI) 및 안내체계: '18년 브랜드 이미지(BI)와 안내체계 지침을 개발해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길을 조성·관리

□ 구간별 특징을 고려한 5가지 주제 길: '한류길', '한려길', '섬진강 꽃길', '남도 낭만길', '남도 순례길'

○ 문체부는 남파랑길이 가진 관광 자원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걷기여행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부 구간별 특징을 고려한 5가지 주제 길을 정했다.

○ ▲ '한류길'은 영화와 한류의 도시, 대도시와 자연의 반전 매력을 보유한 부산부터 창원까지의 구간, ▲ '한려길'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보여주는 해안경관이 아름다운 고성에서 통영, 거제, 사천, 남해로 이어진 구간, ▲ '섬진강 꽃길'은 섬진강과 꽃 경관이 아름다운 하동부터 광양까지의 구간, ▲ '남도 낭만길'은 독특한 생태환경과 다도

해를 따라 낭만을 체험할 수 있는 여수에서 순천, 보성, 고흥으로 이어지는 구간, ▲ ‘남도 순례길’은 남도 유배문화와 다양한 순례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장흥에서 강진, 완도, 해남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 주제별 걷기여행 길의 관광상품화 추진

- 문체부는 남파랑길 구간 중 인문·지리·문학·역사·종교 등 주요 주제별로 걷기여행 길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거리 걷기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순례, 답사, 휴양, 체험 등,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걷기여행 수요 창출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 남파랑길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17개 구간 추천

- 문체부는 남파랑길이 남해안의 멋과 가치를 체험하고 걷기여행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 대표 관광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높고, 걷기여행 안전성과 매력성이 높은 17개 대표 구간을 추천했다.
- 또한, 남파랑길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요소들을 활용해 ‘나만의 인생사진 명소 걷기’, ‘길 위에서 만나는 내 인생의 인물’, ‘남도 식도락 여행’, ‘작품 속 주인공 되어 보기’, ‘산업단지의 낮과 밤, 반전 경관 체험’ 등 남파랑길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 문체부는 장거리 걷기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확충하고 새로운 걷기여행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 남파랑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별 대표 구간을 선정해 상설 걷기여행 프로그램 운영, 해파랑길과 연계한 이어걷기 프로그램 운영, 남파랑길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과 홍보, 맛집과 숙박 연계망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진 공모전 개최와 안내책자 제작, 남파랑길 전용 도보여권과 인증서 발급, 점검 여행(모니터링 투어) 등 다양한 행사도 운영한다.

□ 안내체계 구축, 주요 주제별 걷기여행 시범 운영을 거쳐 '20년 말 정식개통

- 문체부는 앞으로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주제별 걷기여행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0년 하반기에 남파랑길을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걷기여행의 매력을 높일 다양한 걷기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색 있는 주제 길을 관광 상품화할 뿐만 아니라 남파랑길 구간의 자치단체 간 협의

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조성된 남해안 주변의 걷기여행길을 상호 연계해 남파랑길을 남해안의 대표 여행길이자 세계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2) | 게시일 : 2019.03.25.)

[경기도] 도, 12개 경기관광유망축제선정 … 도비 3~5천만 원 지원

- 경기도, 2019 경기관광유망축제 선정
- 고양행주문화제 등 12개 축제 선정 3천만원~5천만원 지원
- 15개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에 이어 12개 경기관광유망축제 선정
- 31개 시군 축제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취지

□ 경기도는 최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양행주문화제 등 12개 축제를 2019년 경기관광유망축제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경기관광 유망축제는 31개 시군 가운데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지 못한 16개 시군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특색 있는 축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 올해 선정된 12개 축제는 고양행주문화제,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과천축제, 남양주 2019 정약용문화제,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의정부 블랙뮤직페스티벌, 의왕철도축제, 하남 이성산성문화제,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 구리 코스모스 축제,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 페스티벌, 용인 정암문화제다. (축제 개요는 첨부자료 참조)

□ 도는 이들 축제에 3천만 원~5천만 원의 도비와 경기도 후원명칭 사용,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특정 축제를 집중 육성하는 것 보다는 31개 시군 별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균형 있게 지원하자는 것이 경기유망축제 선정 취지”라며 “경기유망축제가 시·군의 특색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광과(031-8008-4724) | 게시일 : 2019.03.21.)

[인천광역시] 인천시, 중국의 대표 마이스 박람회 「아이티 앤드 씨엠 차이나」 (IT&CM China) 참가

-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 2019 해외바이어셀러 유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상해에서 열린 중국의 대표 마이스(MICE) 박람회인 「아이티 앤드 씨엠 차이나」(IT&CM China)*에 참가해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와 중국인 단체방문객 유치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 IT&CM China(Incentive Travel & Conventions, Meetings) : IT&CM 전시회 시리즈 중 하나로, 중국 상하이에서 매년 개최되는 마이스 박람회

** KME(Korea MICE Expo) :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마이스 박람회

□ 인천시(마이스산업과)는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공동으로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20주년」을 홍보하고, 이번 행사에 해외바이어와 셀러를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을 펼쳤다.

□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는 국내 최대 마이스 기업간 거래(B2B) 행사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외 바이어셀러 300여명과 250여개 전시업체 등이 참가해 마이스 관련 전시회, 비즈니스 상담, 트렌드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성공적인 개최지원으로 마이스 플랫폼의 역할을 다져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중국의 단체방한 금지조치 해제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마케팅활동을 벌였다. 한국홍보관 내에 인천 마이스 홍보 부스를 두고, 인천의 마이스 인프라와 지원 프로그램을 현지 여행업체와 마이스 관계자들에게 홍보했다.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마이스 바이어들과 32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 김성배 마이스산업과 컨벤션팀장은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와 인천 마이스(MICE)를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며, “특히,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인천 브랜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과(032-440-1513) | 게시일 : 2019.03.21.)

[인천광역시] 바닷길 따라 온 중국 마이스(MICE) 단체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인천

- 중국 생활용품 판매기업 임직원 인센티브 단체 1,550명 카페리로 인천 방문
- 2박 3일 전일정 인천 숙박, 차이나타운, 한중문화관 등 원도심 관광

-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는 3월 25일과 4월 1일 총 2회에 걸쳐 중국 생활용품 판매기업 임직원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1,550명이 인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시와 공사는 인천을 찾은 관광객 900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 1차 환영행사를 개최했으며, 향후 인센티브 단체의 인천 재방문을 적극 요청하였다.
- 중국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이 기업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전체 일정을 인천에 숙박하며, 인천의 원도심에 위치한 차이나타운, 한중문화관등을 방문하여 인천 관광의 특색 있는 매력을 경험 할 예정이다. 이어서 4월 1일에도 650명이 입국하여 같은 일정으로 인천 관광을 할 계획이다.
- 김충진 마이스산업과장은 “한-중 양국 간 관광교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중국 대형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단체가 인천을 방문하고 있다.”라며, “그 간 중국시장 부활을 대비한 선제적 마케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대형 인센티브 단체의 인천 지속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과(032-440-1503) | 게시일 : 2019.03.25.)

[대전광역시] 민간주도로 만들어나가는 대전 방문의 해

- 기획사, 축제, 홍보 전문가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차 기획위원회 개최

- 대전시는 1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임창수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최철규 대전 마케팅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차 기획위원회를 개최했다.
- 기획위원회는 대전 방문의 해가 3년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전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다.
 - 기획위원회는 3개년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보완, 신규 여행 콘텐츠 발굴·제안, 사업 구체화 등 역할을 수행하며, 유관기관·단체, 여행 관련 전문가, 업계 등 30여명으로 구성돼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위원회 위원 소개, 기획위원장 호선, 대전 방문의 해 3개년 확대 추진계획 발표, 3개년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 대전 방문의 해 기획위원장으로서는 정강환 배재대 교수가 호선했다.
 - 정 교수는 “대전 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기획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3개년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토의에서는 첫 회의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는 등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 이날 토의에서는 3개년 확대 추진계획의 구체화 방안, 대전 축제 활성화 방안, 대전 방문의 해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 신규 여행 콘텐츠 제안, 여행 인프라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 대전시 김용두 관광마케팅과장은 “제 1차 기획위원회는 대전 방문의 해 3개년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고, 점검 및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 실무추진단을 운영해 기획위원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관광마케팅과(042-270-3978) | 게시일 : 2019.03.25.)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 민간개발 1개 업체 ‘도전’

- 개발공모 접수마감...‘(주)케이피아이에이치안면도’ 단독 형태로 3지구 응모

-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민간개발업체인 ‘(주)케이피아이에이치안면도’ 1개 법인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 충남도는 25일 오후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공모 접수 마감 결과, ‘(주)케이피아이에이치안면도’의 단독 법인 형태로 3지구 개발에 대한 사업신청서와 사업신청보증금 5억 원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 (주)KPIH는 대전도시공사가 추진중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개발전문 민간업체다.
- ‘(주)케이피아이에이치안면도’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안면도 관광지 3지구(54만 4924㎡)에 「일몰, 일출의 붉게 물든 태양과 소나무, 바다의 풍경을 담아 내 마음의 휴식과 치유를 편안한 공간 “솔해”」라는 컨셉으로 2025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입, 1253실 규모의 고급숙박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도는 ‘(주)케이피아이에이치안면도’의 사업제안서에 대해 4,5월중으로 1,2차 평가를 실시하고 5월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미 응모 지구인 1지구 테마파크와 4지구 골프장은 3지구에 대한 본 계약 및 공사 등 진행상황에 따라 재 공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고준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KPIH가 ‘(주)케이피아이에이치안면도’ 법인을 설립하여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적극성을 갖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기대감이 크다”며 “3지구 단독 응모인 만큼, 신속하게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태안군 안면을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294만 1735㎡에 총 1조 8852억 원(민간자본 1조 8567억 원)을 투입, 테마파크, 연수원, 콘도, 골프장 등을 건립해 사계절 명품 휴양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대규모 계획이다.

(충청남도, 관광진흥과(041-635-3891) | 게시일 : 2019.03.25.)

[울산광역시] “울산관광 만족도를 높인다”

- 울산시, '제4기 울산관광 전문 가이드 양성 교육' 실시
- 3월 19일~ 21일, 울산 역사문화, 관광 경향(트렌드) 등

- 울산시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20명을 대상으로 '제4기 울산관광 전문 가이드 양성자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울산관광 전문 가이드 양성 과정'은 국내(인바운드) 여행사 소속 유자격 가이드로 여행사에서 모객한 해외 관광객에게 울산관광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생태 등을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 교육은 울산의 역사, 문화와 관광 경향(트렌드) 교육, 현장 답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 교육 수료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하여 '울산관광 전문 가이드'로서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울산관광 전문가 가이드 양성 교육을 통해 울산을 바로 알고 해설하는 가이드가 늘어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가이드가 속한 여행사의 울산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켜 울산관광상품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울산시는 공격적인 관광판촉(마케팅)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울산관광 전문가 가이드' 66명을 양성한 바 있다.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052-229-3893) | 게시일 : 2019.03.19.)

[울산광역시] “대만 관광객을 사로 잡자!”

- 동남권관광협의회, 대만 SET TV 초청
- 울산·부산·경남 소개 홍보영상 촬영

- 울산과 부산, 경남 등 동남권 3개 사·도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이 제작돼 대만 방송을 통해 송출된다.
- 울산시에 따르면 동남권관광협의회는 울산과 부산, 경남 등 동남권 3개 시·도를 대만에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만 SET(케이블) TV를 초청, 여행 프로그램을 유치·촬영한다.
- 이번 홍보 영상 제작은 관광분야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만 국민에게 대한민국 동남권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 대만 SET(케이블) TV가 제작하는 ‘아이워커(iWalker)’라는 프로그램은, 20~30대를 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이 세계 각국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현지 음식과 생활들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영상 촬영은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며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울산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동구의 해녀마을 체험을 시작으로 태화강지방정원 십리대숲 은하수길, 떡만들기 체험, 수암야시장 등 울산의 숨겨진 명소를 중심으로 촬영하게 된다.
- 울산시 관계자는 "대만에서 영향력이 있는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 울산 관광지를 소개함으로써 홍보효과를 크게 높이고, 동남권 권역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울산에 관심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에 촬영을 맡은 대만 SET TV는 대만의 주요 케이블 방송이며, 유튜브와 중화항공 등의 항공사 기내홍보에도 영상이 노출되는 등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052-229-3892) | 게시일 : 2019.03.21.)

[울산광역시] 울산시, '관광전담기관' 설립 추진

- 오늘(25일)설립방안 및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개최
- 오는 9월 용역 완료 ... 2020년 출범 계획

- 산업으로 고착된 울산의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관광자원 발굴 등 '울산형 관광전담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 울산시는 3월 25일, 중회의실(본관 4층)에서 송병기 경제부시장 등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관광진흥위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전담기관 설립 방안 및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용역은 해브론스타(책인연구원 정재훈)가 맡아 오는 9월 완료된다.
- 용역 주요 내용은 ▲울산시 관광현황 및 여건 분석, ▲설립형태(조직, 인력 및 적정 자본금 등) 도출, ▲사업 수지 및 경제성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이다.
- 이 용역은 시민 공청회, 시민 설문조사,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 올해 9월 완료되며 관광전담기관의 설립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 울산시는 관광전담기관 설립이 결정되면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설립 등기, 직원채용 등을 거쳐 2020년 내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 울산시 관계자는 “관광은 지역의 콘텐츠와 도시 이미지 등의 기반에서 민간이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역할이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광전담기관을 설립을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수익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052-229-3852) | 게시일 : 2019.03.25.)

[부산광역시] 말레이시아 관광설명회 통해 관광도시 부산 매력 어필 - 부산시, 동남아 관광객 유치 위해 발로 뛴다

- 3.25. 동남아시아 관광시장 개척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관광설명회 개최
- 한류, 축제, 미용 등 말레이시아인 선호 상품 집중 소개로 부산관광 붐업 조성
- 오 시장, 부산 모객 현지 우수 여행사 5곳 감사패 수여로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힘 실어줘

□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부산관광공사는 오는 3월 25일,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오던 관광 마케팅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다.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창립국이자 동남아시아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 국가로 특히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큰 국가이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난해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관광설명회, MICE 로드쇼 개최 및 박람회 참가, 영향력 있는 말레이시아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펼쳐오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부산을 찾은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69,605명으로 2017년 57,820명에 비해 20.4%가 증가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서 시는 현지 여행사, 언론, 여행저널리스트 등 여행업 관계자를 초청하여 부산의 관광자원을 심층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관광문화부 차관 및 관광청 주요 인사 등 정부 관계자와 지역 한인회 기업인 등 주력인사를 초청하여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및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 행사진행은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자연, 미식, 체험 등 다양한 매력을 담은 홍보영상 시청에 이어 최근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류드라마 촬영지 등 새로운 관광지 정보와 사계절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 등을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 부산 인바운드, 마이스 전문 여행사와 현지에서 참가하는 180여개의 아웃바운드 여행사 간 B2B(Business To Business)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행사에는 부산의 한류문화를 알리기 위해 부산시립무용단의 화려한 공연도 준비하였다.

□ 이날 오전 오거돈 부산시장은 다둑 노르 히삼 아마드 다흘란(Datuk Nor Hisham Ahmad Dahlan) 쿠알라룸푸르시장을 만나 관광, MICE, 스마트시티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쿠알라룸푸르를 운항하는 에어아시아X의 벤야민 이스마일(Benyamin Ismail) CEO를 만나 에어아시아,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 부산 인바운드여행사 간 상품개발·판매지원을 위한 공동 프로모션 추진을 제안하는 등 양 도시 간 관광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 또한 설명회에도 참석하여 부산으로 관광객 송출에 기여한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사 5개소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 관광객은 44만여 명으로 일본에 이어 방문국 2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고 있다.”면서 “부산과 말레이시아는 2개 도시 주 26편의 직항을 운항하고 있고 특히 말레이시아는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말레이시아인들이 부산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부산시는 앞으로도 한류, 뷰티, 힐링, 축제 등 부산의 우수한 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동남아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특화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할랄 음식점 인증 확대, 기도실 등 동남아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하였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과(051-888-5202) | 게시일 : 2019.03.21.)

[부산광역시] 부산만의 매력, 대만 안방에서 본다! 대만 여행 TV프로그램(아이완커), 부산 관광지 촬영

- 대만 삼립TV 간판 예능프로그램 '아이완커(I-Walker)'부산 주요 관광지 영상 촬영
- 2019년 동남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대만TV 동남권 관광 영상 제작 및 홍보

-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대만 삼립TV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아이완커(I-Walker)'의 제작팀이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송도해상케이블카, 감천문화마을 등을 촬영한다고 밝혔다.
- 대만 삼립TV '아이완커(I-Walker)'는 인기 진행자가 해외 각지를 찾아 현지의 특색 있는 관광·문화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소개하는 형식의 여행전문 예능프로그램이다.
- 이번 촬영은 '19~'20년 부산이 간사도시인 동남권관광협회의 2019년 첫 공동사업으로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일정동안 부산과 경남, 울산 주요 관광지에서 진행되며, 촬영된 내용은 8월 중 방영될 예정이다.
- 시는 이번 해외 인기 TV예능프로그램의 부산촬영 및 방영은 부산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면서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한동안 발길이 끊긴 중국관광객의 빈자리도 채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에 따르면 2018년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47만 3천여 명으로 전년 239만 6천여 명 대비 7만 7천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대만에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23만 8천여 명으로 전년 18만 6천여 명 대비 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만TV 촬영이 현지에 방영되면 동남권 관광자원에 대한 대만인들의 관심이 급증하여 관련 상품개발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며, 부산시는 앞으로도 대만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재방문객 확대를 위해 동남권 관광상품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과(051-888-5186) | 게시일 : 2019.03.22.)

[부산광역시]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발표심사 대비 1:1 멘토 컨설팅, 부산시가 관광벤처기업의 성공을 코디해드립니다

- 한국관광공사, 3.28.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PT발표 심사 개최
- 부산시, 3.25. 관광벤처기업 발표 심사대비 전문가 초빙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의 1차 서류심사자에게 실전 경험을 전하기 위해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관광분야의 벤처창업과 관광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이번 공모는 3월 28일에는 PT발표 심사가 진행된다. 시에서는 지역의 1차 서류합격자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5일에 전문가를 초청하여 1:1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 참가 대상은 3월 21일 발표된 1차 서류합격자 17개 업체(개인)이며, 실전과 같은 발표 심사를 위해 PT서류가 작성된 업체(개인)에 한하여 참가 신청을 받아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대표가 1:1로 코칭을 한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달 13일 공모 접수에 대비한 ‘공모서류 사업기획안 작성 컨설팅’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공모전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심사를 앞두고 실전과 같이 발표하고 선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사업내용의 효과적인 전달방법, 발표 자세와 유의사항 등을 들을 수 있다.”면서, “신규 벤처기업과 기존 벤처기업이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의 관광 업체 간의 상호협력 관계를 이루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과(051-888-5184) | 게시일 : 2019.03.25.)

[경상북도] 세계로 열린 경북관광.... 경북문화관광공사 출범 비전 선포식 개최

- 대구, 경북 23개 시군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위한 힘찬 새 출발
 - 민선7기 내국인 관광객 2천만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목표... '문화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전 제시
- 경상북도는 20일(수) 경주 경북문화관광공사 대회의장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출범 비전 선포식'을 갖고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한다.
- 이날 행사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큰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이철우 도지사,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지사, 장경식 도의회 의장, 도내 시장·군수, 관광업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경상북도관광개발공사를 시작으로 2012년 경상북도관광공사로 확대 개편해 그동안 도내 공기업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번에 다시 23개 시군을 아우르는 문화관광산업 실행 중심기구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 이날 선포식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민선 7기 경북도가 내국인 관광객 2천만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을 목표로 경북관광 활성화를 발판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 비전 실행을 위해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실현 ▲경북문화관광 마케팅·세일즈 역량 강화 ▲경북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창의와 유연성을 갖춘 건전한 공기업 지향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세웠다.
- 비전 선포식 행사는 개회식, 도내·외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경북혁신위원회 위촉장 수여, 대구시 및 도내 23개 시군과 함께 문화관광경북을 실현하기 위한 큐브 퍼포먼스, 새로운 사명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독특한 서체로 경북문화관광공사 현판을 제작한 서예가 울산 리홍제 선생이 공사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서예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문화에 관광을 더해 대구시, 23개 시군과 함께 도민이 잘사는 관광경북 실현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향후 2본부 체제로 전환해 기존의 관광인프라 개발중심에서 세일즈, 마케팅에 집중하고 최신 트렌드 관광상품에 대한 기획과 개발에 주력하여 관광객 유치에 실질적인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 관광정책과(054-880-3183) | 게시일 : 2019.03.19.)

[경상남도] 경상남도, '2019 경남관광박람회' 통해 관광 활성화에 총력

- 경남도, 박람회 통해 관광자원들의 시너지효과와 함께 글로벌화 추진
- 4월 관광활성화 추진과제 확정, 8월 관광마케팅 전담기관 설립

- 경상남도는 '2019 경남관광박람회'를 2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이번 박람회는 경남이 가진 자연, 역사, 문화와 같은 완벽한 자원들을 한곳에 모아, 서로 화합하고 융합하는 계기를 삼고 시너지효과를 통한 경남관광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2일 개최된 개막식에는 박성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지수 도의회 의장, 경남관광협회 회장,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장, 주한중국문화원 부원장, 18개 시군 부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 박성호 권한대행은 환영사에서 "2017년 기준 760만여명인 경남 관광을 2022년까지 1,000만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만, 오늘 방명록에 '경남관광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적었다고 밝히며, 18개 시군, 도의회, 유관기관과 함께 달성을 해나가자"고 밝혔다.
 - 경남도에서는 관광산업을 제2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8월에 관광마케팅 전담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며, 워킹그룹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모아서 오는 4월에 18개 시군 부단체장들과 관광활성화 추진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 올해 7회째를 맞은 '2019 경남관광박람회'는 <당신의 여행에 경남의 FIT*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경남 18개 시군의 우수 관광지와 관광상품, '경남관광홍보관', '우수축제홍보관', '가야사문화 홍보관', '남명조식테마관', '캠핑&레저관', '국제관' 등 다양한 관광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 그리고 체험과 힐링으로 변화되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행사도 펼쳐졌다. 주요 행사는 경남여행상품개발콘테스트, 경남관광명소 사진전, 경남관광박람회 대학생 서포터즈 경진대회, #갑분싸진관 포토존, 경남여행스타그램 SNS인증샷, 경남의 마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하고 맛보는 이벤트 등이다.
- 이뿐만 아니라, 18개 시군과 중국·베트남 등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바이어 상담회'와 '바이어 대상 경남 팸투어'를 통해 경남관광상품 개발, 관광자원홍보 등 해외 관광객의 지속적인 인바운드 유치도 진행하고 있다.

(경상남도, 관광진흥과(055-211-4623) | 게시일 : 2019.03.24.)

[경상남도] 중국 단체관광객 경남 방문, '중국 금한령 해제되나?'

-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단체관광객 첫 경남 방문
- 지난 1월 31일 중국 여행사(3개)와 MOU 체결 후속 조치
- 경남 중국산동사무소와 도 관광부서와의 협업 성과

- 지난 2017년 사드사태로 인한 금한령 이후 경남을 찾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전무한 가운데, 2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다시 경남을 찾았다.
- 그동안 경상남도는 한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금한령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관광시장의 빠른 선점을 위해 중국 청도에 있는 경상남도 산동사무소(소장 윤주각)를 통해 현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고, 도내 주요 웰니스 관광루트를 개발해 중국 대형여행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도 전개해왔다.
- 특히 지난 1월 31일, 경상남도는 올해 도정의 3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인 '민선7기 문화와 결합된 스토리가 있는 경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첫 성과물로, 웰니스 상품코스를 개발해 중국 여행사 3곳과 단체관광객 경남유치 협력 MOU를 체결했다.
- 이번 중국 단체관광객 경남 방문은 그간의 노력의 성과이자 지난 MOU체결의 후속 조치로,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단체관광객 42명이 1차로 하동·통영 등을 돌아보고, 이어 2차로 14명이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창원·하동·사천·거제 등의 일정으로 도내 주요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 진해 벚꽃, 하동 십리벚꽃길·쌍계사, 통영 동피랑·루자·중앙시장, 사천 바다케이블카 등

- 류명현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그동안 사드사태의 영향으로 침체상태에 있던 한중 관광교류가 재개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한국의 주력시장인 중국·일본·미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약시장인 베트남 대만시장을 공략해 고부가 관광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경남의 웰니스 관광마케팅 활동 결과, 2월부터 대만관광객 248명이 14차에 걸쳐 방문하는 등 경상남도의 홍보 전략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경제가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관광진흥과(055-211-4613) | 게시일 : 2019.03.25.)

[광주광역시] 광주시, 도쿄 테마관광설명회 참가

- 일본 여행업계 대상 광주수영선수권대회 홍보 '총력'

- 광주광역시와 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 19일 일본 도쿄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도쿄 테마 관광설명회'에 참가해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 170명을 대상으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지역 관광지를 홍보했다.
- 시는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활용한 방한 관광상품 기획을 독려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 특히, 오는 31일부터 취항하는 제주항공의 무안-도쿄 나리타 직항편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열리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월드뮤직페스티벌 등 개선된 교통 인프라와 행사기간 진행되는 다양한 볼거리를 강조해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모았다.
- 이에,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관계자는 “세계인의 축제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광목적지 광주가 세계에 더욱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명순 시 관광진흥과장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최대 참가국으로 예상되는 일본 방문객 확대를 위해 오는 4월 후쿠오카, 나고야 등에서 열리는 관광대전과 설명회에 참가하는 등 광주방문 일본 관광객 확대를 위한 마케팅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062-613-3630) | 게시일 : 2019.03.19.)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전북, 대만 관광객 유치 가속화

-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 대만 관광객 유치 위한 공동홍보마케팅
- 24일, 무등경기장에서 한국·대만 연예인 야구행사 개최
- 25~27일, 대만 연예인·방송사 관계자 전라도 주요 관광지 촬영

-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전라도)가 대만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전라도 3개 시·도는 대만의 연예인 야구단과 방송 관계자들이 오는 24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한국·대만 연예인 야구대회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전라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
 - 한국·대만 연예인 야구대회는 지난해 12월9일 대만에서 열린 한국과 대만의 야구경기에 이은 답방 행사로, 배우 정보석이 이끄는 한국의 ‘조마조마야구단’과 대만 가수 손협지(유명 보이그룹 5566멤버) 단장의 ‘SUNSTAR’ 야구단이 경기를 한다.
 - 손협지 단장은 팔로어가 45만명 정도이며, 부단장 아상(MC, 연기자)은 개인 인터넷 방송자로 팔로어가 58만명에 이르는 개인소셜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전라도 방문도 대만 현지 홍보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이번 한국·대만 연예인 야구대회는 방한 관광객 100만명 시대를 연 대만을 대상으로 한류와 야구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라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해외관광마케팅으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제주항공이 후원한다.
- 23일 전남 무안 공항으로 입국한 대만 연예인야구단 SUNSTAR(25명)와 대만방송 EBC, NOWnews, 트래블미디어(8명) 관계자는 24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한국의 조마조마야구단과 친선 경기 후 27일까지 전라도 주요관광지를 방문하게 된다.
 - 야구경기에 이어 24일 오후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자유공원, 낙안읍성, 순천만, 남원춘향테마파크, 전주한옥마을 등 전라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예정이다.
- 이번 대만 방문단의 4박5일 전라도 일정은 4월중 대만 현지 방송에 보도될 예정이다. 대만 현지방송사 EBC는 4월초와 중순에 2회 방영하고, 미디어뉴스인 NOWnews와 트래블미디어는 4월중에 각각 보도할 예정이다.
- 전라도 3개 시·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존 대만관광객 주 상품이었던 계절여행상품(꽃, 단풍, 스키)을 확대해 전라도 체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지를 홍보하고, 특히 올해 열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연계해 전북, 전남, 광주의 관

광브랜드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 이명순 시 관광진흥과장은 “대만 유명 연예인들의 야구경기와 팸투어로 대만 언론 등을 통해 전라도 관광지를 홍보한다”며 “대만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062-613-3630) | 게시일 : 2019.03.19.)

[광주광역시] 어등산 관광단지사업 재개한다

- 광주시, 어등산 개발 민간사업자 3차 공모
- 내달 5~9일 사업 질의받고 6월21일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성 개선과 공공성 확보해 재공모 실시

□ 광주광역시는 장기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민간사업자 3차 공모를 추진한다.

-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주)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위해 4개월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한 운영조건 등 이견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올해 1월 (주)호반건설이 사업협약체결을 포기함으로써 민간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 이번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는 민관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업 규모, 사업 참가 자격 등 지난해 7월6일 공모(2차)와 같지만, 민간사업자의 공공성과 관광인프라확충,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일부 보완해 실시한다.

- 우선 개발계획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자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을 포함한 휴양·문화시설 등의 사업계획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 시는 사업계획서 공모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각기준 가액을 제시하며, 상가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사회환원 비율도 축소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개선했다.
- 또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5성급(특1등급) 호텔 150실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유원지 부지(41만7531㎡)의 50% 이상은 공공편익시설·휴양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토록 하여 관광단지(유원지) 조성 목적에 부합토록 하였으며,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상가시설을 2만4170㎡로 제한했다.
- 아울러, 지난 2차 공모에 논란이 되었던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는 특수목적법인(SPC) 관리 하에 전문운영사 숙박업 운영 조건으로 건립을 허용토록 했다.

□ 공모절차는 4월3일 사업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열고, 공모 지침에 대한 질의를 4월5일~9일 제출받아 4월19일 회신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서는 6월21일 접수해 시민평가단 및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2005년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지는 시의 재정투입 없이 순수 민간자본으로 부족한 관

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등산 일원에 광주의 정체성에 걸맞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이명순 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제안 공모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개선한 만큼 창의적인 개발계획으로 능력있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062-613-3660) | 게시일 : 2019.03.21.)

[전라북도] 2019년 전북순환관광버스 23(토) 운행 시작!

- 전담해설사와 전북 14개 시군 주요관광지 투어
- 도내 25, 서울·부산 출발19, 케이티엑스 기차연계 32 등 총76개 코스 운행

-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전라북도순환관광버스’의 운행이 본격 시작됐다.
- 전라북도 관광부서는 지난해 1만1천5백명이 이용하는 등 도·내외 버스투어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전라북도순환관광버스’ 운영을 23일(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는 전라북도내 14개 시군의 주요관광지를 전담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손쉽게 여행 수 있는 투어상품이다.
- 운행 유형으로는 전주종합경기장, 익산역 등 도내에서 출발하는 당일 도내순환형, 서울과 부산 등에서 출발하는 광역형(1박2일, 당일형), 서울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활용한 케이티엑스 연계형(1박2일, 당일형) 등 총 3개 유형의 76개 코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 * 도내순환형 : 25코스(당일) * 광역형(수도권·경상권) : 19코스(당일10, 1박 2일 9)
 - * 코레일(케이티엑스) 연계형 : 32코스(당일19, 1박2일 13)
- 특히, 올해는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광역형(수도권·경상권) 운영 횟수를 확대하고, 20~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코스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며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계절별 인기관광지와 생태관광지, 지역 축제, 체험관광지 등 다양한 코스로 운행할 방침이다.
- 또한, ‘전북투어패스’와의 연계를 위해 도내 순환형의 경우 전북투어패스 소지자에게 탑승료의 20%를 할인할 계획이며, 광역형 및 기차연계형의 경우에도 전북투어패스를 구입·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전북순환관광버스 탑승료는 도내순환형 당일관광 10,000원, 전북투어패스 연계코스 11,000원~14,000원, 광역형(수도권·경상권) 코스 당일 30,000원, 1박2일 97,000원~107,000원, 케이티엑스 연계형은 62,000원~165,000원까지며,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 1588-1466)로 가능하다.
 - * 전북순환관광버스 홈페이지 : <http://www.jbtour.or.kr/>, <http://www.nbtour.co.kr/>
- 전라북도 운동·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순환관광버스는 전담해설사가 동행하는 가성비 높은 투어상품이다”며 “올해도 인기관광지 운행, 친절서비스 제공, 수준 높은 해설 안내 등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관광총괄과(063-280-2706) | 게시일 : 2019.03.21.)

[전라남도] 혼자서도 남도 맛 여행 즐길 수 있다

- 전남도, 꼬막비빔밥전복 톳밥·녹차떡갈비 등 '단품요리 30선' 발간

- 전라남도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 자유여행자들이 혼자서도 시군 음식점에서 주문해 먹을 수 있는 '단품요리 30선'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 단품요리 30선에는 전남지역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별교 꼬막비빔밥, 전복 톳밥, 녹차 떡갈비 등 단품요리 경연대회에 입상한 음식에 대한 설명과 식당 정보, 가격, 주변 관광지 등을 함께 소개했다. 또 국내외 방문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은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제작됐다.
 - 주요 소개 음식은 전남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젊은이들의 미식여행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강진 허브정원의 '통밀곡물샌드위치', 장흥 풍경의 '황칠에스칼로피', 순천 정박사연요국밥의 '양증족발정식', 무안 하늘 꿈 식탁의 '단호박돈까스' 등이 있다.
- 그동안 전라남도는 지역을 방문하는 개별 자유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맛의 1번지 전남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식재료를 만든 1만 원 내외의 혼자서 주문 가능한 요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 단품요리 30선은 단품요리 발굴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단품요리 발굴 경진대회의 우수작, 미스터리쇼퍼 방문, 한국경영인증원의 검증 등을 거쳐 선정된 음식이다. 인터넷 활용 시 전라남도 관광정보 제공 사이트인 '남도여행 길잡이(www.namdokorea.com)'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김명원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남도한정식이 4인 기준으로 서비스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여행객이 즐길 수 있는 1인분 주문이 가능한 단품요리를 발굴해 안내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남도를 찾는 여행객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맛의 본고장 전남'에서 남도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40) | 게시일 : 2019.03.21.)

[전라남도] 전남 대표 여행상품 ‘남도한바퀴’ 30일부터 달린다

- 23일부터 인터넷 예매...섬관광지전통시장 등 28개 코스 운행

- 전라남도의 대표적 남도여행 관광상품인 2019년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오는 30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남도한바퀴는 23일부터 인터넷 예매, 25일부터 현장 예매를 시작한다.
- 특히 올해는 체류형 ‘1박 2일’ 코스 2개소, 전통 5일 시장 연계 코스 5개소, 신안 천사대교목포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섬해양 연계 코스, 전북경남 인근 관광지를 연계하는 광역 코스 5개소 등이 신설됐고 지역별 핵심 쟁점 사업 시행 일정을 고려해 상품 코스를 수시로 조정할 예정이다. 올 한해 총 28개 코스에서 평일 3회, 주말 9회, 총 1천30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 ‘남도한바퀴’ 기본 요금은 1일 코스 9천900원이다. 섬 여행과 1박 2일 여행코스 등은 코스별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 차등 판매한다.
- 세부 코스별 이용 금액, 탑승 정보 및 예약 문의 등은 남도한바퀴 누리집 (<http://citytour.jeonnam.go.kr>)과 금호고속 상담센터(062-360-8502)에 하면 된다.
- 김명원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올해 남도한바퀴 상품은 섬해양과 연계한 여행 코스를 확대하고, 체류형 1박 2일 상품, 지역 전통시장 연계 코스, 야경 코스 등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구성했다”며 “특히 오는 7~8월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전남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광주시와 공동으로 권역별 반일코스, 1일 코스, 1박2일 코스 등을 별도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남도한바퀴’는 전남을 찾는 개별 여행객이 늘고, 대중교통 접근이 취약한 지역 관광지 연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4년부터 처음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26개 코스에 평균 40여 명이 탑승해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 여행상품으로서 여행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40) | 게시일 : 2019.03.21.)

[전라남도] 전남도,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 나서

- 26일까지 4일간 관서지역 연수단 초청 문화관광자원 답사

- 전라남도는 26일까지 4일간 일본 관서지역 민족학교, 민족 학급 교사 등 43명의 오사카한국교육원 연수단이 전남 문화관광자원 답사를 한다고 밝혔다. 관서지역은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시가현, 나라현, 와카야마현이다.
- 전라남도는 이번 답사에서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의 정신과 한국의 근대 문화 역사를 느끼고,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느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일본계 학교민족학교 수학여행단과 재일교포 어린이캠프 등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 답사는 23일 왕인박사 유적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공생원 방문, 24일 목포 근대 역사관, 우수영, 운림산방, 진도국악 체험, 25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참관수업, 광주 학생운동기념탑, 국립518 묘지 참관 등을 한다.
- 김명원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일본 관서지역 수학여행 관련 유력 인사 등이 대거 참여한 이번 연수를 잘 활용해 일본계 학교민족학교 수학여행단 및 재일교포 어린이캠프단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40) | 게시일 : 2019.03.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글로벌 마이스 중심지 재도약 추진

- 도, 3대 전략 설정... 올해 마이스분야 100억원 규모 투자 예정
- 2019년 MICE 유치목표 전년대비 10% 증가한 220건 설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글로벌 마이스 중심지로 재도약키 위해, 3대 전략*을 설정하고 마이스분야에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 * 3대 전략 : 제주 MICE 산업 균형화, 국내·외 MICE 수요 창출 및 제주 MICE 마케팅 시장 확대, 제주 MICE 서비스 품질 향상
- 하드웨어(인프라)와 소프트웨어(인적자원, 서비스 등)의 조화를 통해 제주 마이스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제주의 마이스분야 중 약점으로 꼽히는 전시분야를 육성할 계획이다.
- 또, 미래관광의 핫 키워드인 도내 공공 와이파이(Wi-Fi)와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이스 참가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오는 2022년 3월 완공예정인 다목적 복합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형 특화전시상품 개발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 제주 MICE 산업 균형화

- 인프라 확충 =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이 올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문체부(국비예산)와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나간다.
- 콘텐츠 개발 =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큰 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음식, 낚시 등 제주형 특화 전시상품을 개발하고, 도내 사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시사업을 공모해 지원한다.
- 인재양성 =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주형 MICE 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 도내 주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상담회를 확대한다.

■ 국내·외 MICE 수요 창출 및 제주 MICE 마케팅 시장 확대

- 국제회의 유치 = 국내·외 마이스 유치 목표를 전년대비 10% 증가한 220건으로 설정해 마이스 목적지로서의 브랜드를 높이고,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액을 상향한다.
- * (외국인 2만원, 내국인 1만원 → 내·외국인 2만원)
- 산업대전 개최 =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지역단위로는 한국 유일의 마이스분야 산업대

전을 개최해, 국제 마이스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또, 도내 마이스업체들의 비즈니스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는 국내·외 일반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 나간다.

■ 제주 MICE 서비스 품질 향상

- 만족도 = MICE행사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자체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도내업체와 공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참가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지역상권과 연계한 홍보물도 제작·배포한다.
 - 빅데이터 = 오는 2021년까지 5천개소에 설치될 공공 와이파이(Wi-Fi)를 활용해, 마이스 참가자들의 행태 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 국제 MICE유치 건수는 178건으로, 당초 목표인 170건을 초과 달성했다. 2017년 UIA기준 아시아 6위, 국내 3위를 달성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064-710-3311) | 게시일 : 2019.03.19.)